

# 17

## 옷차림으로 말해요

롬 13:11~14, 벵전 3:3~4

은혜찬송 75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122장 (찬송의 옷)



1.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딸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딤후 2:9)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이보다 하더라 (계 19:8)



## 말씀을 이해하기

인간이 입은 최초의 옷은 아담의 가죽옷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훗날 오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찬송의 옷, 의의 옷,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옷차림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언어나 행동 외모(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표정 등)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즉 외모는 말이나 행동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외모가 우리 자신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겉사람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꾸미는 것 이상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솔로미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피부가 검고 거친 여자였지만 솔로몬 왕은 그녀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온몸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But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to fulfill its lusts (Ro 13:14)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소돔'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몸에 치장했던 물건들을 다음 성경구절에서 찾아 적어봅시다(사 3:16~26).
- ② 외출할 때 내가 가장 신경쓰는 외모는 무엇입니까?

3

나의 옷차림 중 고칠 부분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적어봅시다.

4

하루에 거울을 보면서 지내는 시간을 계산해 보고 내 마음의 단장을 위해 성경을 보는 시간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보는 시간을 어떻게 늘릴지도 적어봅시다.

구분	거울 보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월 일		
앞으로의 계획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20:1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의

사 61:10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화

롬 13:14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딤편 2:9

---

---

---

---

---

---

---

---

↓

뵤뵤 3:3

---

---

---

---

---

---

---

---

↓

뵤뵤 3:4

---

---

---

---

---

---

---

---

↓

계 19:8

---

---

---

---

---

---

---

---



##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은 품성이 더러워서 걸레같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이며 신앙고백입니다.

더러운 곳에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지나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면 책상 위가 깨끗해지고, 마루를 지나가면 마루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걸레를 쓰고 나면 마루 한 구석에 던집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 번도 안방 아랫목을 차지해 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해서 자기가 아랫목을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가 사용된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도 이런 걸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곳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때, 우리의 손길이 닿고, 우리의 관심이 닿고, 우리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사랑이 싹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내가 사용된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그 일에 부족한 나를 사용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 알아주시고 주님 한 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있어요~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성경 창세기 5장에 따르면 그 당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므두셀라입니다. 그는 무려 969세나 살았다고 했습니다(창 5:27). 창세기 5장에서는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창 11:10~26)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결국 모세 당시 70, 80세에 이르기까지(시 90:10) 서서히 불규칙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 홍수 후에 노화를 촉진시키는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대홍수 전에는 '궁창 위의 물'(창 1:7)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기의 상층에 엄청난 양의 물이 보이지 않는 수증기의 형태로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온실효과'를 나타내 전 세계를 온화한 기후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잘 걸러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은 나중에 응결되어 지구에 떨어짐으로써 대홍수의 원인이 되었고, 이때부터 위에서 말한 역할을 더 이상 충분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현대의 장수학에 의해 밝혀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장수는 나이가 아니라 노화과정,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노아 홍수 후에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창 8:20) 환경의 극심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노화가 촉진되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많은 화석도 중대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종류의 화석만 나온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종류대로 창조'(10번 언급)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며, 또 한 가지는 과거의 화석 중에 상당수가 현재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의 종류 중 30cm 되는 것이 있고, 나비는 51cm, 소라 150cm, 비버 2.4m, 잠자리 70~100cm, 사람 발자국은 51~560cm나 되는 화석이 나옵니다. 식물 중 아스파라거스는 현재 1.5m 정도 자라는데 화석에는 무려 27m짜리가 나오며 지금의 이끼는 3cm 정도 되는데 화석에는 60~90cm까지 나옵니다. 이로 보아, 과거의 지구는 동물과 식물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사람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음으로 덮여있는 영구 동토에서도 많은 지하자원이 나온다는 것은 과거에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했으며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환경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주(州) 최북단 프루도베이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최근에 생산되었습니다. 이 바람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일인당 연평균 소득이 3만 5천 5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원주민으로 등장했습니다(동아일보 1993.12.10). 또한 시베리아에서도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이 장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